

「2023년도 1분기 지역채널 심의위원회」 의견반영 결과

지역 (개최일)	자체제작 프로그램 종합 평가 및 심의 의견
서울지역 (3월30일)	<p>① ‘딜라이브 뉴스(보도 프로그램)’ : 취재보도 시 간접광고(광고효과 등)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상에 대해 자체심의와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?</p> <p>- ‘국민의 알 권리’와 공공성, 공익성을 원칙으로 자체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이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영상에 불러 처리를 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.</p> <p>다만 취재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거나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한 경우, 해당 사항의 영상을 노출하는 경우는 있음.</p> <p>② ‘자체제작 프로그램’ 홍보방안 : 회사 이미지 제고와 시청률 상승을 위한 콘텐츠 마케팅 전략과 방안은?</p> <p>- 지역채널만을 통한 콘텐츠 홍보의 한계성을 느끼고 2022년부터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대폭 개선하였음. 특히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MZ세대의 트렌드를 콘텐츠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음.</p> <p>③ 지역채널과 유튜브 채널의 동시 운영으로 지역채널의 정체성 유지가 더욱 중요해 보이는데, 이에 대한 운영방침과 대책은?</p> <p>- 과거보다 유튜브 채널의 운영이 활발하지만 TV시청률의 변화는 미미함. 원인은 TV시청자가 유튜브 채널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채널의 시청자만 증가한 것으로 사료됨. 또한 TV시청자가 재방송을 요청 시 시청자에게 유튜브 채널 구독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어 오히려 자사 채널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음.</p>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역채널 발전에 대한 심의위원회 의견</p> <p>① 지역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지속적인 콘텐츠 운영안 마련 제안</p> <p>- 당사에서는 2022년부터 지역채널전략팀을 구성하고 TV시청률 및 유튜브 채널의 누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콘텐츠 운영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.</p> <p>② 콘텐츠 제작 시, SNS에 적용할 수 있는 숏츠 제작포맷을 고려할 것.</p> <p>- 일부 콘텐츠는 특성상 한계가 있지만 가급적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음.</p> <p>③ 시청자의 다양한 요구를 최대한 수용할 것.</p> <p>- 홈페이지, SNS플랫폼을 통해 시청자의 의견을 받고 있으며 올해부터 당사 견학 신청도 받는 등 다각적인 지역주민 대상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음.</p>

지역 (개최일)	자체제작 프로그램 종합 평가 및 심의 의견
경기지역 (3월31일)	<p>① ‘공공성 콘텐츠’ 제작 제안 : 지자체 및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공공·공익성 콘텐츠 기획 및 제작에 대한 의견 제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당사는 지역방송으로서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역 이벤트 등 각종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였음. <p>앞으로 위원회의 견해에 따라 공익적인 캠페인 등 공공 콘텐츠 기획과 제작 협업을 통해 지자체의 제작투자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음.</p> <p>② ‘재난재해 방송’ 제작 제안 :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재난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 및 제작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긴급 재난재해 시 뉴스특보와 실시간 자막방송을 실시하며 지난 2022년도 호우 재난과 이태원 참사 뉴스특보를 집중 편성하는 등 주민에게 지속적인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. <p>③ ‘사회공헌사업’ 운영 방안 : 회사의 공익적인 이미지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업인데, 향후 운영 계획은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회공헌사업은 제작비, 인력 투입 등의 측면에서는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지만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회사의 중점 목표로 인식하고 매년 시행하고 있음. 아울러 주민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민 홍보도 여러 매체를 통해 펼치고 있음.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역채널 발전에 대한 심의위원회 의견</p> <p>① 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콘텐츠 개발 제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회사는 저소득층, 다문화 가구 등 소외계층을 위한 취업정보, 모금 이벤트 행사 등 유익한 프로그램을 매년 제작하고 있으며 외국인을 위한 Ai 영어 뉴스도 기획·제작하는 등 공익적인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. <p>② 다양한 지역명소를 소개하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 개발을 제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미 ‘로드다큐동네방네엔’ 등을 통해 감춰진 지역명소와 먹거리 등을 프로그램에 녹여내고 있으며 참신한 소재를 계속 발굴해 제작할 계획임. <p>③ 시청자참여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제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위원회의 견해를 적극 반영하여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음.